

구한말 근대스포츠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손환 · 하정희* (중앙대학교)

A Study on the Introduction Process of Korean Modern Sports during Last Period Chosun Dynasty

Son, Hwan · Ha, Jung-Hee (Chung-Ang Univ.)

요약

본 연구는 구한말 근대스포츠의 도입에 대한 실태를 재검토하는데 있다. 구한말의 근대스포츠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과 미국, 일본으로부터 근대적인 신문화와 함께 도입되었다. 이들 근대스포츠는 주로 외국인들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학교를 통해 과외활동과 대항경기, 그리고 스포츠단체의 활동을 통해 일반사회에 보급되면서 근대스포츠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그중에서 자전거는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구한말의 근대스포츠는 실제로 언제, 누구에 의해 도입되었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한국체육사연구의 부진한 성과와 새로운 자료발굴의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study reexamined the actual situation of introduction of modern sports. Modern sports was introduced with modern culture from Europe, United States and Japan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after the conclusion of Japan-Korea treaty of 1876. This modern sports was introduced mainly by foreigners and established a system by a dissemination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school extracurricular, match and activity of sports organization. The introduction of bicycle is worthy of notice because it was introduced not only for the match but also for a real life tool. But there was a limitation to search how, when and by whom had modern sports introduced. The poor result of study on history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nd no efforts to discover new data would be the main reason of this limitation.

Key words: last period chosun dynasty, korean modern sports, introduction process

* hjhgreen77@naver.com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43862).

I. 서론

1876년 일본에 의한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구한국의 정책은 쇄국정책에서 개화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일본을 비롯해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와 교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대부분의 분야가 근대적인 체제로 정비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개화정책은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당시의 개화과는 국제정세를 약육강식, 우승열패의 경쟁시대라 인식하고 스포츠는 부강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근대적인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근대교육의 시작과 함께 외국인선교사의 활동을 주목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선교활동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서민자제를 위해 미션스쿨을 설립하고 거기에 근대스포츠를 소개했다.

외국인선교사의 활발한 교육활동에 자극을 받은 구한국 정부는 1895년에 교육개혁을 단행해 근대적인 학교의 설립에 착수했다. 이렇게 설립된 학교와 외국인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미션스쿨을 중심으로 구한국의 근대스포츠는 학교의 정규과목으로 채용되지 않았지만 과외활동과 운동회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특히 학교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근대스포츠의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신체단련과 건전한 정신의 함양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의 각성과 새로운 지식을 계몽하는 역할도 하면서 서서히 학교의 틀을 넘어 일반사회에도 소개, 보급되어 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구한말 근대스포츠의 도입과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종래의 선행연구를 보면 한국에서 근대스프

츠의 도입시기와 최초의 경기, 기록 등을 정리한 선구적인 연구업적이 있다(나현성, 1958, 이학래, 1990).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근대스포츠의 도입시기와 도입자, 그 내용에 있어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대스포츠의 종목, 도입시기, 도입자,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구한말 근대스포츠의 도입에 대한 실태를 재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신문, 잡지, 단행본 등을 주된 자료로 사용하고 여기에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추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의 근대스포츠는 주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근대스포츠 도입종목을 축구를 비롯해 육상, 야구 등 9개로 한정하는 이유는 이들 근대스포츠의 대부분이 구한말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II. 구한말의 시대적 상황

주지의 사실과 같이 일본과 강화도조약(1876)을 체결한 구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외국과 수호조약을 맺으며 근대적인 신문화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구한국 정부는 1894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각 분야에 걸쳐 근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중에서 교육개혁을 보면 종래 학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예조를 폐지하고 학부아문을 설치했다. 또한 이듬해 2월 2일에는 전 국민에게 「교육입국조서」를 공포하고 교육은 국가보존의 근본이며 신교육은 과학적 지식과 학문의 실용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하며 교육의 3대 강령으로 덕양, 체양, 지양을 강조했

다. 그리고 교육입국의 정신을 통해 학교를 증설하고 인재를 교육시키는 것이 민족중흥과 국가보존에 직결된다고 했다(구한국관보. 1895. 2. 2).

이러한 교육입국의 정신에 따라 구한국 정부에서는 학제의 개혁에 착수해 한성사범학교 관제(1895. 4. 16 칙령 제79호)를 비롯해 각 학교의 관제를 발표했다¹⁾. 이 관제의 발표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체조가 정규과목에 채택되어 주당 3시간의 체조수업이 실시되었다. 체조수업의 내용은 주로 유희(창가, 행진, 경주), 병식체조(대열행진, 집총훈련, 구보), 보통체조(교정술, 도수체조, 곤봉체조) 등이었다(나현성, 1970: 34-35).

그러나 이 시기의 체조수업은 제정되어 있는 시간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가 체조를 필수과목이 아니라 수의과목으로 채택했고, 또한 체조교사와 시설 등의 부족도 하나의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황성신문』의 기사에서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교장 및 관립외국어학교에서는 현재 본교 학원에게 체조운동을 교습시킬 교사가 없기 때문에 군부에 조회하여 교사 2명을 파견해줄 것을 학부에 보고했다(황성신문. 1901. 4. 4).

학부대신이 원사부에 조회하여 일영아범덕청외국어학교의 생도에게 체조법을 교련시키기 위하여 오늘부터 사관 5명을 파견해서 토일양일외에 매일 하오2시부터 3시30분까지 시무한다고 하더라(황성신문. 1902. 4. 18).

1) 이 시기에 공포된 각 학교의 관제를 보면 한성사범학교를 비롯해 무관학교관제(1896년 1월 11일), 외국어학교관제(1896년 5월 10일), 의학교관제(1899년 3월 24일), 중학교관제(1899년 4월 4일), 상공학교관제(1899년 6월 24일), 광무학교관제(1900년 9월 4일), 농상공학교관제(1904년 6월 8일), 육군연성학교관제(1904년 9월 24일)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관공립학교에서는 과외활동으로 육상경기 중심의 운동회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관립외국어학교에서는 운동회뿐만 아니라 야구, 축구 등의 근대스포츠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외국인교사 허치슨, 헬리팩스, 터너, 마텔 등이 자국에서 배운 근대스포츠를 학생들에게 지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Ⅲ. 구한말 근대스포츠의 도입

구한말 근대스포츠는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근대적인 신문화와 함께 도입되었다. 여기에서는 이 시기에 도입된 각종 근대스포츠의 종류, 도입 시기, 도입자,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축구

구한말 축구는 언제, 누구에 의해 도입되었는지 현재 그 경로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계자의 증언과 문헌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축구의 도입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1882년 6월 인천 제물포에 영국 군함 플라잉피시호가 입항하였다. 이때 들어온 군함의 승무원들은 선상생활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중에 부두에서 공을 찼다. …중략… 승무원들은 관가의 허가도 없이 상륙했다 하여 우리나라 군졸들에게 쫓겨 가게 되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에 당하게 된 일이라 영국 승무원들은 불을 차다가 그만 불을 두고 가고 말았다. 이때 아이들이 불을 주워 영국인들의 흉내를 낸 것이 우리나라에 축구가 들어오게 된 연유이다(대한축구협회, 1986: 136-137).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뒤인 7월 이번에는 영국군함 앵가운드호가 제물포에 다시 입항하였다. 양국 간의 친선을 목적으로 들어온 이들은 관가에 한성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였다. …중략… 한성에 들어온 영국 승무원들은 플라잉피시호 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하며 훈련원 공지에서 공을 찼다. 물론 오늘 날과 같은 형태의 축구경기를 했을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공차기 놀이를 신기하게 구경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그들이 차던 공을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공을 주었는데 영국인들이 떠난 뒤 훈련원에서는 한동안 공차기를 했다는 것이다(대한축구협회, 1986: 137).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언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으로 한국 최초의 축구심판이었던 서병희가 당시 관찰사인 부친 서승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한다(대한축구협회, 1986: 137). 다음으로 문헌에 따르면 YMCA의 명예회장을 역임한 전택부는

한국에서 축구가 처음 보급되기에는 1898년 쯤부터였다. 관립영어학교 학생들은 영국인 선생들이 가져온 축구공을 처음 보게 되었다. 축구공차기는 교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학생들은 영국인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공을 찼다. 차츰 실력이 붙으면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에는 훈련원에서 영국 공사관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다(전택부, 1993: 101-102).

또한 『배재80년사』에는 “1902년 비로소 배재학당 운동장에서 풋볼이 구르기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며(김세한, 1965: 299), 나현성은 “우리나라 축구의 시작은 1906년 봄 관립외국어학교의 분교인 범어학교의 교사 마태율이 그 학교 학생들에게 지도한 것이며”라고 되어 있다(나현성, 1958: 50).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구한말의 축구는 1882년 영국인에 의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축구는 1898년 관립영어학교의 영국인 교사의 지도에 의해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한편 당시의 축구 모습은 1902년에 조직된 배재학당 축구부의 활동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때의 축구는 아식 축구라는 것이었다. 인원은 몇 사람이던지 제한이 없으며 양편이 동수면 되었고 문에 대하여도 넓이와 높이의 한정이 없이 문직이의 키를 표준으로 하였으며 …중략… 경기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어느 편이 이고 항복을 하여 백기를 드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며 점수가 많은 편이 이기는 편이었다. 기술에 있어서는 뽕을 “찌리빙”한다던가 “패스”하는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높이 차는 것을 “들어 뽕”이라 하여 이것을 기술로 알았다(김세한, 1965: 299).

이처럼 당시의 축구는 강인한 체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경기방법과 규칙, 기술 등은 지금과 비교해 아직 미숙한 상태였다.

2. 육상

종래 한국체육사에서는 한국에서 육상의 도입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데 나현성은 『韓國運動競技史』에서 한국의 육상경기는 1896년 5월 2일 동소문 밖 삼선평에서 영국인 교사 허치슨, 헬니 픽스의 지도하에 행해진 화류회라고 되어 있다(나현성, 1958: 4). 또한 이태웅은 1896년 5월 31일 훈련원에서 개최된 관립소학교 연합운동회를 한국 최초의 운동회라고 규정해도 손색이 없다고 했다(이태웅, 2005: 41).

그러나 을미의숙(1895)을 설립한 김윤식의 일

기인 『續陰晴史』에 따르면 운동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十八日 己未陰微雨 午後大風 今日乙未義塾
六處學徒三百餘名 會于訓練院 設大運動會 余
往觀之(國史編纂委員會編, 1960).

위의 내용을 보면 을미의숙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며 오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학생 300여명이 훈련원에서 대운동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는 것 보다 1년 앞서 운동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후 1897년 6월 16일에는 영어학교의 대운동회가 훈련원에서 행해졌다. 이 운동회에서는 각국의 영사와 공사, 정부의 국무대신, 그밖에 외국인사가 참석했다. 연병장에서 어깨에 총을 멘 학생들의 행진이 있는 후 각종 경주를 했는데 영국인 교사 허치슨과 터너가 심판, 헬리팩스가 기록원이 되어 경주를 진행시켰다. 경주의 내용은 300보 경주, 600보 경주, 1350보 경주, 공 던지기, 포환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이인삼각, 경마경주, 줄다리기 등이었다(독립신문. 1897. 6. 19).

이와 같이 구한말의 육상은 을미의숙에서 개최된 운동회가 최초이며 오늘날의 육상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영어학교의 운동회를 계기로 매년 각 학교와 사회에서는 운동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3. 골프

구한말 골프는 언제, 누구에 의해 도입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본의 문헌에 따르면 1900년경 외국인에 의해 당시 개항지인 원산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다카하타(高島種夫)가 1937년 『GOLF』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문헌의 존재가 없는 구전이지만 조선 골프사의 한 부분일 것이다. 실로 40년 전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골프코스가 당시 북선의 개항장 원산항의 한쪽 구석이었으나 ... 중략... 옛일을 아는 노인을 방문한 결과 놀랍게도 40년 전, 즉 1897년경 훌륭한 골프코스가 구 세관구내서 부근에 걸쳐 있었다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판명한 것이다. 그 뒤로 놀란 동료들이 다양하게 이에 관한 기록과 자료의 모집에 노력했으나 불행하게 모은 것을 얻지 못하고 노인들의 이야기이외에 기억을 더듬어도 얻는 것이 없고 단지 한국정부의 세관 관리로서 고용된 외국인들이 무료한 나머지 구 세관구내를 중심으로 6홀?을 만들어 서로 즐겼다고 하는 것 외에 거의 불명이고 그 후 외국인이 돌아간 후 집에서 오래된 클럽이 몇 개 나온 적이 있으며 혹은 그 외에 클럽과 볼 등도 나온 적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당시 불완전하지만 골프코스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되었는데(高島種夫, 1937: 21-22).

그리고 다카하타는 1940년에도 조선의 골프도 입에 대한 내용을 『GOLF』에 게재했는데

반도골프의 사적으로서 그 존재만큼은 명료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정말로 옛날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기록이나 문헌도 없는 단순한 옛일을 아는 노인의 구전이기에 때문에 역사라고는 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고 싶다. ...중략...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1900, 1901년경인가 당시 한국정부의 세관에는 거의 외국인 고문이 있어 대부분은 이들 외국인 고문과 그 부하 외국인이 세관 사무를 하고 있어 원산부의 세관에도 이들 외국인 몇 명이 고용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아직 세관으로서 외국인이 집무하고 있던 시대 그 구내에 6홀의

골프코스가 이들 외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중략… 그 구내에 있던 6홀의 골프코스, 물론 넓다고 하더라도 세관의 문으로 충분한 코스의 구내이다. 충분한 코스가 될 정도의 지역일리는 없으나 그야말로 베이비코스 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상상되는데 …중략… 당시부터 거주하는 옛일을 아는 노인이 조석으로 왕래하며 그들의 플레이를 봤다고 하는데(高島種夫, 1940: 44).

라고 되어 있다. 이 골프코스는 그 후 원산부가 시가정리와 확장을 위해 잡목이 많은 산의 중턱부터 산기슭에 걸쳐 있던 외국인 주택을 헐 때 그 집의 지붕에서 오래된 몇 개의 클럽이 발견되어 촌로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고 현재 원산의 골퍼가 보관하고 있다(高島種夫, 1940: 45).

이러한 사실에서 구한말 골프는 1897년이나 1900년대 초 세관업무로 보기 위해 고용된 외국인이 업무에서 벗어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구내에 6홀의 코스를 만들어 골프를 쳤다. 그러나 이것은 마을 노인의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원산의 시가정리를 위해 외국인 주택을 해체할 때 오래된 골프클럽이 발견되어 원산의 골퍼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앞으로 자료의 발굴을 통해 밝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4. 정구

구한말 정구는 언제, 누구에 의해 도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나현성의 『韓國運動競技史』에 따르면 탁지부의 일반관리들이 1908년 4월 18일 회동구락부를 조직하고 이듬해 5월 2일 경기회를 개최한 것이 시초라고 되어 있다(나현성, 1958: 84-85).

그러나 1932년에 발간된 오시마(大島勝太郎)의 『조선야구사』에 따르면

1911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경성정구계의 창설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그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지만 야구보다는 오래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당시 정구계의 선구자라고 하면 일한와사(지금의 경성전기주식회사)의 무사(武者鍊三)였다. 도교고등상업학교 재학시절부터 전국에 이름을 떨친 무사였다. 테니스라고 하면 외국인과 어울려 정식경기를 할 정도의 경성에서 무사의 기량은 뛰어났다. 경성정구계, 나아가 반도정구계를 오늘날 있게 한 것은 그의 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大島勝太郎, 1932: 123).

라고 해 구한말 정구는 야구보다 오래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실하지 않지만 1904년 이전에 일본인 무사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배재백년사』를 보면 당시의 정구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구부는 1900년에 조직이 되었으나 처음에는 네트도 라켓도 없이 네트 대신에 새끼줄을 치고 라켓은 널조각을 가지고 장난삼아 시작한 것이 배재의 정구부의 시작이나 후에 정구의 인기도 늘어남에 따라 정구부도 강화되었다(배재백년사편찬위원회, 1985: 255).

이와 같이 배재학당에서는 1900년에 정구부를 만들었는데 당시 정구의 용구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정구경기를 했다고 오�히려 놀이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겠다. 배재학당에서 정구가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아마도 그 후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908년 4월 18일에는 탁지부의 관리에 의해 회동구락부가 설립되었는데 임원은 위원장에 스키(鈴木穆), 부위원장에 히사(久芳道), 고마츠(古松憲郎), 식장위원에 박용구의 12명, 접대위원에 한규복의 9명, 여흥위원에 김명규의 11명

으로 구성되었다(황성신문. 1908. 4. 18). 회동구락부는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바둑, 장기, 공사, 정구 등의 활동을 했다(대한체육회, 1965: 34). 이듬해 5월 2일에는 요네쿠라초(米倉町)의 정구코트에서 정구경기를 했다(황성신문. 1909. 5. 4).

이상의 사실에서 구한말 정구는 1900년에 배재학당에서 정구부가 조직되어 행해졌는데 아직 미숙한 상태였다. 정구가 본격적으로 행해진 것은 1900년대 중반 일본인의 무사에 의해서이며 그 후 회동구락부가 설립되어 주로 일반사회인을 대상으로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야구

구한말 야구는 1904년 미국인선교사 질레트(Gillett)가 황성기독교청년회 회원에게 지도한 것이 처음이다(동아일보. 1930. 4. 2, 大島勝太郎, 1932: 1). 질레트는 경성에 부임하기 전 평양에 1, 2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2, 3명의 동호인과 함께 야구를 하고 숭실대학의 학생들에게 지도했다. 물론 규칙적으로 지도한 것은 아니었다(大島勝太郎, 1932: 1-2). 당시에는 야구를 타구(打球), 타구(打毬)라고 했다(황성신문. 1906. 2. 17, 4. 9).

1905년에는 관립한성고등학교에 야구팀이 생겼는데 동교의 체육과 담임인 다카하시(高橋)가 키운 팀이다. 다카하시는 반도야구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최초의 경기인 황성기독교청년회와 관립한성고등학교의 심판을 맡을 정도로 당시 반도야구계의 1인자였다. 구한말 최초의 야구경기는 1905년 여름 관립한성고등학교가 황성기독교

청년회에 신청을 해 훈련원에서 거행되었다(大島勝太郎, 1932: 2).

이 경기에서 관립한성고등학교가 승리했다. 동년 10월에는 황성기독교청년회의 설육전이 훈련원에서 행해졌는데 이 경기에서는 황성기독교청년회가 승리했다. 이처럼 1905년경까지 구한말의 야구는 황성기독교청년회와 관립한성고등학교의 독무대였다(大島勝太郎, 1932: 2).

그러나 당시의 야구는 동네야구의 수준으로 야구용구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구한말 초창기 야구의 모습을 보면 유니폼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선수는 한복에 짚신을 신고 뛰었으며 하나의 배트를 겨대로 사용했다(大島勝太郎, 1932: 2).

1906년에 들어와서는 야구경기가 성행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팀끼리의 경기에 자극을 받아 각 학교에 야구팀이 생겼기 때문이다. 당시에 거행된 경기기록을 보면 1906년 2월 11일에는 황성기독교청년회와 덕어학교가 훈련원에서 경기를 해 덕어학교가 3점차로 승리했다(황성신문. 1906. 2. 17). 또한 동년 4월 7일에는 일본어학교와 영어학교가 독립관 앞에서 경기를 해 영어학교가 2차로 승리했다. 그리고 경신학교에서 야구부를 조직해 관립한성고등학교, 황성기독교청년회와 경기를 해 각각 1승, 연패했다(동아일보. 1930. 4. 3).

이듬해 1907년에는 황성기독교청년회 선수들이 코치를 하고 있던 휘문의숙이 야구부를 조직해 황성기독교청년회와 경쟁했는데 미치지 못했다. 그중에서 단 한번 황성기독교청년회를 이긴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당시의 『황성신문』에서는 “휘승황패(徽勝皇敗)”라고 근 제목을 붙여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의 일반인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오히려 반감을 가진 자가 적지 않았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의 스포츠에 관한 기사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동아일보. 1930. 4. 3).

2) 이에 대해 황성신문 1906년 2월 17일, 4월 9일 기사를 보면 타구(打球)와 타구(打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에서 최초의 야구경기는 손환·이가람(2011). 한국 최초의 야구경기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50(5). 19-28을 보면 1896년 4월 25일 서대문 외곽공터에서 미국 해병대원과 미국인 거주자의 경기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야구가 도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 학교간의 대항경기가 행해지게 되어 야구기술도 서서히 발전해갔다. 이러한 속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야구경기가 행해졌는데 그것을 제일 한국인유학생단체의 본국에의 원정경기였다.

윤기현을 운동부장으로 해서 25명으로 구성된 대한홍학회 야구부는 1909년 7월 21일 훈련원에서 재정서양선교사와 황성기독교청년회 연합팀과 야구경기를 해 19대9로 승리했다(황성신문. 1909. 7. 25). 이 경기에서 대한홍학회 야구부는 유니폼과 스파이크 복장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이것은 구한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종래 규칙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유학생에 의해 선명해졌다(大島勝太郎, 1932: 4). 그리고 대한홍학회 야구부는 “소년남자”라는 운동가도 소개했다(황성신문. 1909. 7. 22). 그 후 유학생은 동년 7월 24일부터 개성, 평양, 선천, 안악 등을 순회하며 야구보급에 힘썼다(황성신문. 1909. 7. 21).

6. 유도

종래 한국체육사에서는 한국에서 유도의 도입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데 『대한체육회사』에서는 “오늘날의 유도는 1907년경 일본인 靑柳喜平에 의해 전래되었으며...”(대한체육회, 1965: 57)라고 되어 있다. 또한 이제황은 『신유도』에서 “근대화된 강도관 유도가 한국에 수입되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09년 황성기독교청년회였다”(이제황, 1976: 22)라고 해 각각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흥종은 1927년 『경성일보』에 게재되어 있는 아베(阿部文雄)의 경성유도발달사를 이용해 자신이 발행한 『한국유도사』에서 “문헌상 근거가 확실한 内田良平과 그의 도장을 최초로 인정하고 그 이전의 역사적 근거를 계속 연구할 것을 기대한다. 1906년에 内田良平이 서울 明治町에

서 도장을 개설한 사실이 발견된다”(이흥종, 1984: 20)고 되어 있다. 여기서 아베의 경성유도발달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성에 강도관 도장을 창시한 인물은 당시 통감부 촉탁 우치다(内田良平)이다. 그는 일진회에 관계한 인물로서 1906년 明治町の 어느 일본식 건물의 공장에 도장을 개설했다. 그 크기는 다다미 30장 정도이고 초기에는 2, 30명의 수련생이 있었다. 사범에는 우치다(内田) 5단, 순사인 시가(志賀矩初), 실업가 아오야기(靑柳)가 있었다(경성일보 1927. 2. 2).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입수한 강도관 기관지인 『유도』에 게재되어 있는 오다(小田省吾)의 경성유도발달사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아베의 경성유도발달사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小田省吾, 1918: 31). 참고로 오다는 아베보다 9년 전에 경성유도발달사를 작성했다.

이와 같이 구한말 유도는 현시점에서 1906년 우치다에 의해 일본 강도관 유도가 도입되었다고 생각된다.

구한말 최초의 유도경기는 1908년 3월 28일 비원에서 내각원유회의 주최로 열린 경시청 순사간의 경기였다(황성신문. 1908. 3. 28). 동년 9월에는 무관학교장 이희두와 학무국장 윤치오가 교육계의 청년과 일반국민의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도기계체육부를 설립했는데 이 단체에서는 습사, 승마, 격검, 유술 등의 활동을 했다(황성신문. 1908. 9. 4).

한편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는 1906년 “장사 백명을 양성하자”는 이상재의 발언으로 유도부를 조직했는데 이때의 유도사범은 나수영이었다(전택부, 1993: 102). 그 후 1909년에는 황성기독교청년회에 유도장이 설치되었는데 이에 대해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중앙기독교청년회의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도사업은 주로 유도, 농구, 권투, 체조의 사부로 대략 소개할 수 있다. 유도는 1909년에 고나수영씨와 유근수씨를 초빙하여 조선에 처음으로 도장을 창설하였으니 지금에 이르도록 26년간 입문자 총90여인에 달하며(동아일보 1934. 3. 3).

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구한말 최초의 한국인 유도사범은 나수영과 유근수이며, 또한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유도장은 황성기독교청년회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7. 자전거

종래의 한국체육사에서는 구한말 자전거는 언제, 누구에 의해 도입되었는지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당시의 신문기사와 자전거 관계자와 면담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한국 사이클경기의 변천과정”을 고찰한 선봉옥의 연구에 따르면 구한말 자전거의 도입에 대해 다음의 3가지 설을 제시하고 있다(선봉옥, 1997).

첫째, 최초 도입한 인물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었다,

둘째, 만약 1883년 윤치오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한다면 그가 최초 도입자이며 시기는 1883년이 된다.

셋째, 윤치오가 1895년 미국에서 귀국할 때 가지고 왔다고 해도 기존의 1896년에 도입했다고 하는 서재필, 고희성보다 시기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그가 최초로 도입했다.

이상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한말의 자전거 도입은 대략 1880년부터 1890년 중반에 도입되었으며 한국인으로서 윤치오가 최초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한말 첫 자전거경기는 1906년 4월 22일 훈련

원에서 육군참위 권원식과 일본인 요시가와(吉川)에 의해 거행되었다(황성신문, 1906. 4. 16).

1907년 6월 20일에는 경성의 자전거상회 주최로 훈련원에서 자전거경기가 열렸다(황성신문, 1907. 6. 18). 또한 1909년 4월 2일에는 조선일일신문사 주최로 훈련원에서 경용상점의 점원을 위로 해주기 위해 자전거경기가 열렸는데 40회를 도는 이 경기에서는 헌병대의 후지다(藤田高助)가 우승했다(경성일보 1909. 4. 3, 4. 6).

이와 같이 자전거경기는 다른 스포츠종목과는 달리 주로 일반사회인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한편 당시의 자전거는 경기이외에도 사용되었는데 『황성신문』에 따르면 “군부에서 긴급한 용무로 사용하기 위해 자행거 2대를 구입해 배치했는데 자행거는 급한 용무가 생기면 사용할 수 있다”(황성신문, 1908. 11. 13)고 되어 있어 구한말의 자전거는 경기뿐만 아니라 군부의 용무, 즉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8. 농구

구한말 농구는 1907년 봄 황성기독교청년회의 초대 총무였던 미국인선교사 질레트에 의해 소개되었다(조선일보 1931. 8. 18). 그러나 질레트가 1908년 5월 26일 미국에 귀국해버려(황성신문, 1908. 5. 28), 농구의 지도와 보급은 일시 중단되었다. 한국에서 농구가 본격적으로 지도, 보급된 것은 1906년 3월 25일 미국인선교사 반하트(Barnhart)가 황성기독교청년회의 간사로 부임하고 나서부터였다(전택부, 1994: 206).

9. 스케이트

구한말 스케이트는 1908년 5월 26일 미국인선교사 질레트가 본국에 귀국하기 위해 가구를 팔고 귀국할 때이다.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를 쇠

붙이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기이하여 일금 15전을 주고서 샀다. 사기는 샀으나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 후 질레트를 찾아가 물어 비로소 얼음지치는 기계라고 알게 되었다. 이것을 산 사람이 현동순이다. 그는 집근처인 삼청동 강변에서 겨울이며 얼음지치기를 몇 번했으나 도무지 나가지 않자 고심한 끝에 간신히 취득한 것이 스케이트사 시초의 에피소드이며 이것이 시조가 아닐까 생각한다(이길용, 1934: 17).

이 스케이트는 지금의 롱 스케이트가 아니라 쏿 스케이트로서 날이 짧고 두꺼운 것을 보통 구두 밑에 나사로 달게 된 것인데 현재의 피규어와 흡사한 모양이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마저도 입수가 대단히 어려워 그것을 모방하여 목판에 붙인 갈날 스케이트 혹은 철사를 목판에 달고 이것을 발목에 매어 얼음지치를 했다. 그 당시의 스케이트는 육상에서 경주하듯이 급피치로 달리거나 혹은 긴 치기 등의 빙상유희의 여흥에 불과한 것이었다(대한체육회, 1965: 53).

한편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는 “2월 11일에 평양 대동강 빙상에서 일인이 대운동을 하는데 여흥으로 빙상에서 자전거 경주를 한다”(대한매일신보 1908. 2. 6)고 되어 있어 현동순이 질레트에게 스케이트를 구입하기 약 3개월 반 전에 이미 일본인에 의해 스케이트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구한말 스케이트는 누구에 의해 도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1908년 2월 이전 일본인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1910년 2월 6일에는 조선일일신문사 주최로 한강에서 빙상운동회가 개최되었는데 오쿠보(大久保) 사령관을 비롯해 이시즈카(石塚) 장관, 문무관 수백 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당일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관람자가 참석해 전차 2, 3대를 늘렸다(대한민보. 1910. 2. 6).

이처럼 구한말의 스케이트는 현동순이 질레트

에게 스케이트를 구입해 행했는데 그것은 현동순 혼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1908년 2월 이전에 일본인에 의해 도입되어 주로 일본인들의 운동회를 통해 보급되었다고 생각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구한말 근대스포츠의 도입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에 발행된 신문, 잡지, 단행본 등을 주된 자료로 사용해서 근대스포츠의 종목, 도입 시기, 도입자,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구한말의 근대스포츠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과 미국, 일본으로부터 근대적인 신문화와 함께 도입되었다.

이들 근대스포츠는 주로 관립외국어학교와 미션스쿨의 외국인교사, 외국인선교사, 일본인과 외국인에 의해 도입되었다. 특히 그중에서 축구와 육상은 학교에 도입되었는데 정규과목이 아닌 과외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운동회를 통해 보급되었다. 그리고 야구와 농구는 황성기독교청년회에 도입되어 주로 학교와의 대항경기를 통해 보급되었다. 또한 정구와 유도, 스케이트는 일본인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주로 스포츠단체의 활동이나 운동회를 통해 일반사회에 보급되었다.

한편 골프는 세관업무를 보기 위해 고용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도입했으며, 자전거는 일반사회인의 경기와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처럼 구한말의 근대스포츠는 주로 외국인들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학교를 통해 과외활동과 대항경기, 그리고 스포츠단체 활동을 통해 일반사회

에 보급되면서 근대스포츠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구한말의 근대스포츠는 실제로 누구에 의해 언제 도입되었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한국체육사연구의 부진한 성과와 새로운 자료발굴의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연구 성과의 축적을 통해 구한말 근대스포츠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금후의 과제로 하고 싶다.

참고문헌

경성일보. 1909년 4월 3일.
 경성일보. 1909년 4월 6일.
 경성일보. 1927년 2월 2일
 구한국관보. 1895년 2월 2일.
 김세한(1965). **배재80년사**. 배재학당.
 나현성(1958). **한국운동경기사**. 보문사.
 나현성(1970). **한국학교체육제도사**. 도서출판교육원.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6일.
 대한민보. 1910년 2월 6일.
 대한체육회(1965). **대한체육회사**.
 대한축구협회(1986). **한국축구백년사**.
 독립신문. 1897년 6월 19일.
 동아일보. 1930년. 4월 2일.
 동아일보. 1930년 4월 3일.
 동아일보. 1934년 3월 3일.
 배재백년사편찬위원회(1985). **배재백년사**. 배재중
 · 고고
 선봉옥(1997). **한국 사이클경기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길용(1934). 현대조선스포츠사. **신동아**. 4(3). 신
 동아사.
 이제황(1976). **신유도** 수상계사.
 이태웅(2005). 舊韓末 最初 運動會에 대한 異說. **한국체육학회지**. 44(4).
 이학래(1990). **한국근대체육사연구**. 지식산업사.
 이흥종(1984). **한국유도사**. 한강문화사.
 전택부(1993).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종로서적.
 전택부(1994).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범우사.
 조선일보. 1931년 8월 18일.
 황성신문. 1901년 4월 4일.
 황성신문. 1902년 4월 18일.
 황성신문. 1906년 2월 17일.
 황성신문. 1906년 4월 9일.
 황성신문. 1906년 4월 16일.
 황성신문. 1907년 6월 8일.
 황성신문. 1908년 3월 28일.
 황성신문. 1908년 4월 18일.
 황성신문. 1908년 5월 28일.
 황성신문 1908년 9월 4일.
 황성신문. 1908년 11월 13일.
 황성신문. 1909년 5월 4일.
 황성신문. 1909년 7월 21일.
 황성신문. 1909년 7월 22일.
 황성신문. 1909년 7월 25일.
 大島勝太郎(1932). **朝鮮野球史**. 朝鮮野球史發行所.
 小田省吾(1918). 京城柔道發達史. **柔道** 4(10). 柔道
 會本部.
 高島種夫(1937). 日本ゴルフの發祥地は朝鮮-四十
 年前話-. **GOLF**. 7(9). 目黒書店.
 高島種夫(1937). 朝鮮のゴルフ小史-あれこれ思ひ
 出咄-. **GOLF**. 10(11). 目黒書店.
 논문투고일: 2016년 5월 1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30일